



: 2026 1 16 10:10



산흰줄범하늘소 / *Clytus raddensis* Pic, 1904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|
| 생물분류 | 곤충 |
| 속국명 | 줄범하늘소속 |
| 과국명 | 하늘소과 |
| 과명 | Cerambycidae |
| 일반특징 | <p>몸길이는 7~12mm이다. 머리에는 거친 점무늬들이 퍼져 있다. 더듬이 마디 중에서 세 번째 것이 가장 길다. 앞가슴등판은 매끈하고 너비보다 길이가 길며 거친 점무늬와 혹이 흩어져 있다.</p> <p>딱지날개는 길이가 너비의 약 2.5배이고, 어깨에는 부드러운 노란 털로 된 점이 있다. 또한 딱지날개의 시작 부분에는 부드러운 노란색 털로 이루어진 띠가 있는데, 이 띠는 등판의 뒷부분을 향해 휘어져 있지만 등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. 날개 끝은 잘린 듯한 모양이고, 바깥을 향해 있는 작은 돌기는 나타나지 않는다.</p> <p>암수의 차이점은 알려진 것이 없다.</p> <p>알은 매우 길쭉한 모양이다. 애벌레는 이마방패가 하얀색이고, 사다리꼴이며, 너비가 길이의 2배이다. 큰턱이 시작되는 부분은 빨간색이고, 앞부분은 검은색이다. 앞가슴등판은 넓고 앞쪽 절반은 둥글다. 배의 옆면에는 연갈색의 부드러운 털이 모여 있다.</p> <p>번데기는 더듬이 사이의 이마가 매끈하고, 세로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. 앞가슴등판은 중간의 뒤쪽 절반부터 넓어지며, 앞, 뒤쪽으로는 좁아진다.</p> <p>너비와 길이는 비슷하다. 옆면에는 뺏뻣하고 억센 털이 모여 있다. 배는 길쭉하며, 7번째 등판은 뒤쪽이 둥근 모양이다.</p> <p>광엽수림 또는 혼합림에 서식한다. 암컷은 지름 3~7cm 정도의 마른 나뭇가지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. 말라 죽은 활엽수에 날아 들며, 다양한 꽃 위에서도 볼 수 있다. 또한 잘린 참나무류 주변에서도 발견된다. 애벌레의 모습으로 겨울을 난다.</p> |